

강성열 교수의 성경을 여는 열쇠, 창세기

12강 족장사에게 배우는 교훈

1. 약속과 성취의 기본 틀

구약성경의 첫 다섯 권인 오경은 약속과 성취(promise-fulfillment)를 기본 틀로 가지고 있는 바, 이 기본 틀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때에 생겨난다. 특히 12:1-3에 그것이 잘 드러나 있다. 이것은 창세기야말로 약속-성취 구도의 출발점임을 의미한다. 땅과 자손의 둘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고 편무적(片務的)이며 무조건적이다. 족장들의 잘잘못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성취된다.

족장사(12-50장)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네 족장들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들 족장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의 약속을 기본 줄기로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과 그로부터 큰 민족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 약속은 나중에 가나안 정착과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적어도 족장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좀처럼 성취되지 않는다.

2. 약속 성취의 지연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도 정착할 땅을 쉽게 구하지 못하며, 족장들의 아내들은 한결같이 약속의 자손을 쉽게 얻지 못하고서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하는 고통을 겪는다. 자손 약속의 경우 사라, 리브가, 라헬 등에게서 그러한 사실이 발견된다. 땅 약속의 경우는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 이야기(23장)에 그 점이 잘 드러나 있다.

9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낳았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을 보지도 못하고서 12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죽은 곳은 헷 족속이 살고 있던 헤브론, 곧 기랴아르바였다. 아내를 위한 애곡 기간을 마친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의 시신을 매장해야 했는데 불행하게도 당시의 아브라함은 아내를 매장할 땅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여지껏 자기 아내를 매장할 만한 몇 평의 땅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여전히 약속과 현실 사이에 커다란 간격을 느끼는 채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전에 떠난 고향 땅(우르나 하란)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이미 오래전에 고향을 등진 까닭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는 수 없이 원주민인 헷 족속을 찾아가 그들의 동의를 얻어 아내의 시신을 매장할 땅을 구입해야만 했다(4절). 그는 재판이 행해지거나 공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던 성문(城門) 앞으로 나아가서(10절) 나그네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자신의 딱한 처지를 그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였다. 그러

면서 그는 그들에게 죽은 아내를 묻을 수 있는 땅을 좀 샀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러자 헷 족속은 그에게 가장 좋은 땅을 매장지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헷 족속의 제안을 들은 아브라함은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사고 싶다는 자신의 생각을 그들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에브론은 성문에 모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 굴과 그 주변의 밭까지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말하였다. 아브라함이 그 밭값을 주겠다고 하자 에브론은 그 값이 은 400세겔인데 어찌 그것을 가지고 거래하겠느냐는 투로 말하였다.

에브론의 이 말은 마치 그 땅을 공짜로 주겠다는 듯한 느낌을 주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아브라함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한다는 거래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땅값을 제대로 받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말이었다. 은 400세겔이라는 액수가 그 점을 뒷받침한다. 사실 이 금액은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었다.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넓은 땅을 은 17세겔에 매입한 것이나(렘 32:9)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가 사마리아산 일대를 은 두 달란트(=2,000 세겔)로 구입한 점(왕상 16:24)을 고려한다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가격은 '바가지 요금'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장 다른 대안(代案)이 없던 아브라함으로서 바가지를 쓰더라도 막벨라 굴과 그 주변의 밭을 한꺼번에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 정작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막벨라 굴뿐이었지만 에브론이 아브라함의 약점을 알고서 그 굴에 딸린 밭까지 사야만 거래를 하겠다고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헷 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요구한 은 400세겔을 달아 주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마므레 근처의 막벨라에 있는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및 그 밭의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를 소유하기에 이르렀다. 그것도 모든 헷 사람들이 모여 있는 성문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 땅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머물러 살면서 처음으로 사들인 땅이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구체적인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땅에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 사라를 매장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자기 소유의 땅에 합법적으로 아내의 시신을 매장할 수 있었으니 땅 한 평 없이 살던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겠는가! 더욱이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제 1세대가 아닌가! 이러한 그들이 여전히 나그네로서 남의 땅에 묻힌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사라의 법적인 소유권을 확보한 땅에 안장된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20절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함으로써 사라의 매장에 관한 이야기를 끝맺고 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실제로 이 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묻히는 무덤(가족묘)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그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며(25:9), 이삭과 리브가, 레아(49:30-31) 등도 차례로 이 굴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집트에서 임종을 맞은 야곱은 요셉을 비롯한 12아들에게 자신의 시신을 반드시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명하였고, 그의 아들들이 이 유언을 그대로 지킴으로써 마지막으로 야곱 역시 조상들과 함께 그 굴에 묻히게 되었다(49:29; 50:13).

요컨대, 족장들이 직면한 이러한 현실, 곧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만 같은 하나님의 약속(땅과 자손)에 비해 너무도 초라한 그들의 현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지만 그 약속이 꼭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님을 강조한다. 아울러 그것은 족장들로 하여금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인내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시간을 잠잠히 바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약속의 성취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을 보여 주기도 한다. 사람의 힘으로는 약속 성취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이다. 그러기에 사람의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야 말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약속 성취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최상의 신앙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3. 차자 상속의 주제

족장사에 나오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는 장자권이 큰아들이 아닌 동생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동생의 장자권 상속은 족장사에 줄기차게 나타나는 주제이다. 이삭이 자기보다 먼저 출생한 이스마엘을 제치고 장자권을 갖는 것이나, 야곱이 형 에서를 제치고 장자권을 갖는 것이 그러하다. 이 점은 야곱의 아들들에게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는데, 밑에서 두 번째인 요셉이 큰아들인 르우เบน을 제치고서 장남의 복을 받은 것이다. 요셉도 애굽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었지만, 야곱은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큰아들의 복을 주었다.

이렇듯이 장자권이 동생에게 돌아간다는 족장사의 일관된 주제는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또는 약속)이 결코 어떤 인간적인 조건에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아울러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어떤 권리나 자격을 가진 자(큰아들)에게 돌아가기보다는 자격과 권리를 전혀 갖지 못한 사람(동생)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선천적으로 어떤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더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고전 1:26-31; 눅 18:9-14 참조).